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그리스

Hellenic Republic

2019년 12월 3일 | 선임연구원 조영관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그리스
아테네



일반개황

면적 13만 2천 km ² 	인구 1,071만 명 (2019 ^e) 	정치체제 대통령 중심 의원내각제 	대외정책 친서방 정책 
GDP 2,140억 달러 (2019 ^e) 	1인당GDP 19,974 달러 (2019 ^e) 	통화단위 Euro(EUR) 	환율(U\$기준) 0.89 (2019 ^e) 

- 그리스는 유럽 동남부, 발칸반도 남단에 위치하여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및 터키 등의 국가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음. 고대의 문화 유적을 비롯한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을 토대로 관광업이 발달한 반면 제조업 기반은 매우 취약함.
- 2019년 7월 실시된 조기총선에서 보수 신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확보하여 단독 정부를 구성하고 당대표인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가 총리에 취임하였으며, 감세 및 민영화 등 친시장주의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재정위기로 인해 2010년 이후 유로존, IMF 등 국제채권단으로부터 세 차례의 구제금융 지원을 받았으나, 2017년 이후의 경제개혁 조치로 인해 경제가 안정됨에 따라 2018년 구제금융을 종료한 바 있음.
- 대외적으로 마케도니아와의 국명 협상이 마무리되었으며, 터키와는 키프로스 및 에게해에서 영토분쟁이 지속되고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61. 4. 5 수교 (북한과는 미수교)

주요협정 과학기술협력협정('94), 투자보장협정('95), 항공협정('96), 이중과세방지협정('98), 관광협정('06), 해상협정('06), 경제협력협정('10), 군사기밀정보협정('16)

교역규모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주요품목
수출	2,718	1,628	978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합성수지
수입	175	446	604	석유제품, 기타금속광물, 기호식품

해외직접투자현황(2019년 6월 말 누계, 총투자기준) 18건, 16,825천 달러

국내경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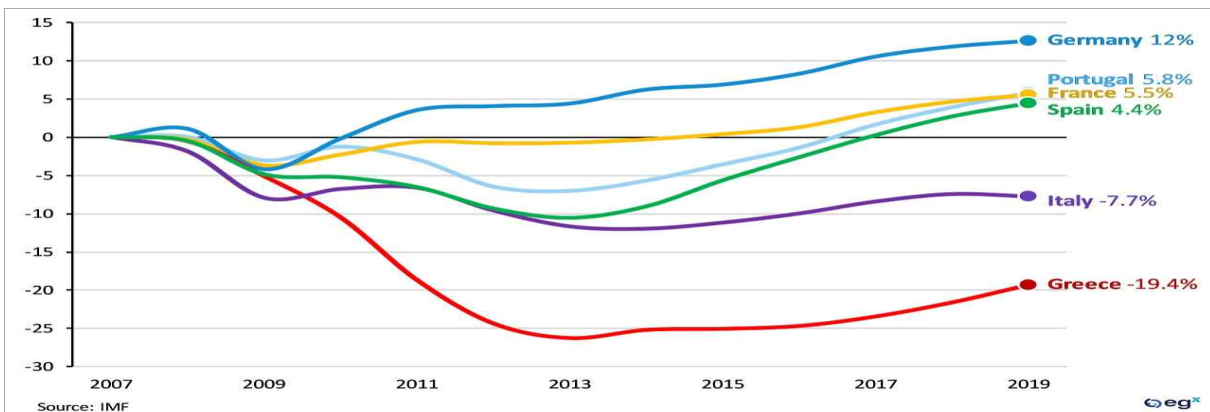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f
경제성장률	-0.4	-0.2	1.5	1.9	2.0
소비자물가상승률	-1.1	0.0	1.1	0.8	0.6
재정수지/GDP	-2.8	0.6	1.1	1.0	-0.3

자료: IMF, EU

국가채무위기에서 벗어나며 점진적인 경제 회복 조짐

- 그리스는 과중한 재정적자로 인한 경제위기로 2000년대 말 이후 경제가 크게 침체되었으나, 2017년 이후 국가채무위기에서 벗어나며 경제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음.
- 그리스 경제는 2017년 1.5%의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된 이후, 2018년 1.9%에 이어 2019년에도 2.0%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경제성장률 회복은 2017년과 2018년 각각 15% 이상의 총수출증가율 기록, GDP 대비 총투자 비율의 점진적 상승(2015년 10.2% → 2017년 12.5% → 2019년 13.9%), 낮은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등에 힘입은 것임.

<그림 1> 그리스와 유로존 주요국의 GDP 규모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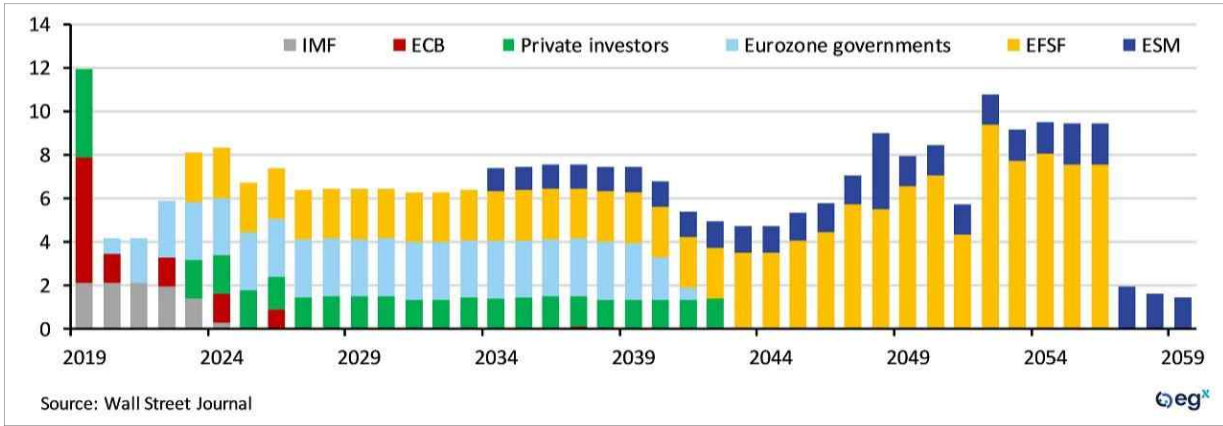
* 2007년을 0으로 하였을 때 2018년의 변동율

- 2010년에 시작된 대그리스 구제금융 프로그램은 2018년 8월에 종료되었음.
- 2015년에 시작된 유로존의 유로안정화기구(ESM)의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지급 프로그램이 종료되어 구제금융 체제를 마치게 됨.
- 그리스는 2009년 재정적자로 인한 경제위기 발생 이후에 EU, ECB, IMF 등으로부터 3차에 걸쳐 약 3,0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지원받았으며, 향후 2059년까지 상환 스케줄이 예정되어 있음.
- 그리스 정부는 구제금융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EU의 금융 및 재정 감독을 계속 받으며 추가 긴축 방안 도입 등을 논의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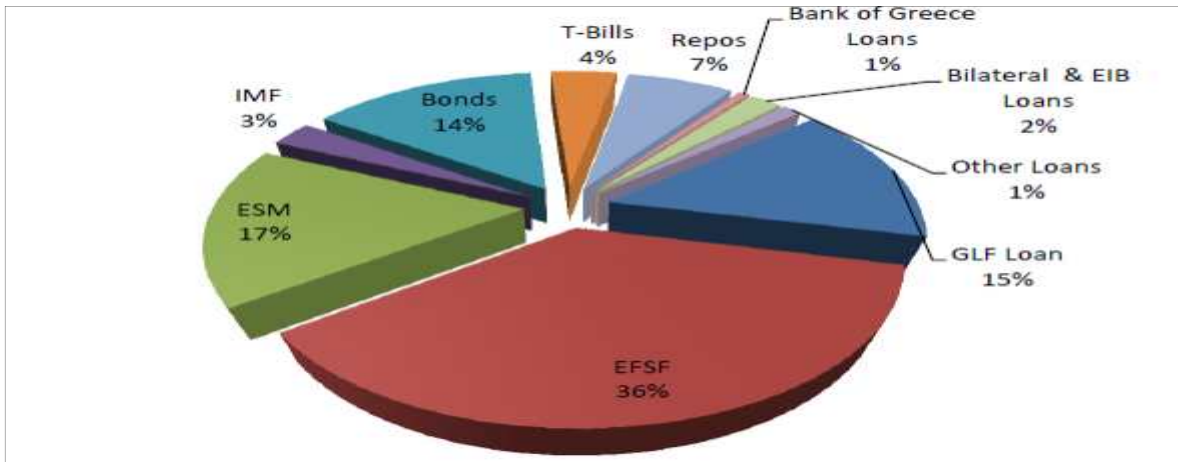
국내경제

<그림 2> 그리스의 외채 상환 스케줄

단위: 십억 유로



<그림 3> 그리스 정부의 외채 구조



자료: Borrowing and Debt. Annual report. Greece. 2018. (2018년 12월 말 기준)

*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은 EU 회원국에 구제 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비상기구로 2010년 5월 설립되었으며, 유로안정화기구(ESM)은 EFSF를 대체하는 상설기구로 2012년 10월 설립됨.

지속적인 긴축재정으로 안정적 재정수지 유지

- 구제금융 이후 연금 삭감, 공무원 상여금 및 보조금 삭감, 의료·복지 예산 절감 등 긴축재정 정책으로 2016년 이후 2018년까지 재정수지 흑자를 유지하였음.
- 2019년에는 정부의 세율 인하 정책에 따라 GDP 대비 -0.3%의 재정수지 적자가 전망됨. 그리스 정부는 2019년 1월부터 법인세를 기존의 29%에서 28%로 인하하였으며, 5월부터는 식료품 등 특정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기존의 24%에서 13%로 인하함.
- 또한 통합재정수지에서 정부채무에 대한 이자수입 및 지급 항목을 제외한 기초재정수지는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GDP 대비 3.3%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2018년 구제금융종업 조건으로 그리스는 유로존과 2018~22년까지 기초재정수지의 GDP 대비 3.5% 유지, 이후에는 2.2% 유지에 합의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IMF는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기초재정수지 합의조건을 완화하여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음.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f
경 상 수 지	-1,611	-3,261	-3,606	-6,249	-5,255
경상수지/GDP	-0.8	-1.7	-1.6	-2.9	-2.5
상 품 수 지	-19,603	-19,858	-22,389	-26,532	-26,091
상 품 수 출	27,518	27,230	31,703	38,208	37,436
상 품 수 입	47,121	47,088	54,092	64,741	63,527
외 환 보 유 액	1,497	1,917	2,274	2,115	1,983
총 외 채	480,900	455,400	484,800	461,200	456,500
총외채잔액/GDP	244.5	233.2	238.2	211.3	213.3
D.S.R.	38.2	21.7	25.8	14.5	23.7

자료: IMF, EIU

민간소비 회복에 따른 상품수입 증가로 경상수지 적자 지속

- 경제 안정으로 민간소비가 회복됨에 따라 상품수입이 늘어났으며, 이로 인한 상품수지 적자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민간소비 증가, 에너지 수입 가격 상승으로 2017년의 -1.6%에서 2018년 -2.9%로 증가하였으며, 2019년에도 -2.5%를 기록할 전망이다.
- 또한 경상수지는 2020~24년 동안에도 민간소비 증가와 에너지 국제가격의 점진적 상승에 따라 연평균 GDP 대비 -2.9%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반면, 서비스 수지는 그리스의 최대 산업인 관광산업의 호조에 따라 흑자를 지속하고 있음.

외채상환능력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점차 하락

- 2019년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213.3%에 달하고 있으나 2015년의 244.5%에 비해서는 13% 하락하였음.
- 2019년 10월 말 그리스 정부는 유럽안정화기구(ESM)로부터 IMF 자금 27억 유로의 조기상환(연 이자율 4.9%) 및 이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의 ESM,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자금 상환 연기를 승인받기도 하였음.

유로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GDP 대비 공적채무 비중 지속

- 2018년 말 기준 GDP 대비 공적채무 비중이 181%에 달하며, 당분간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2022년 154.4%, 2030년 123.9%, 2040년 111.4% 등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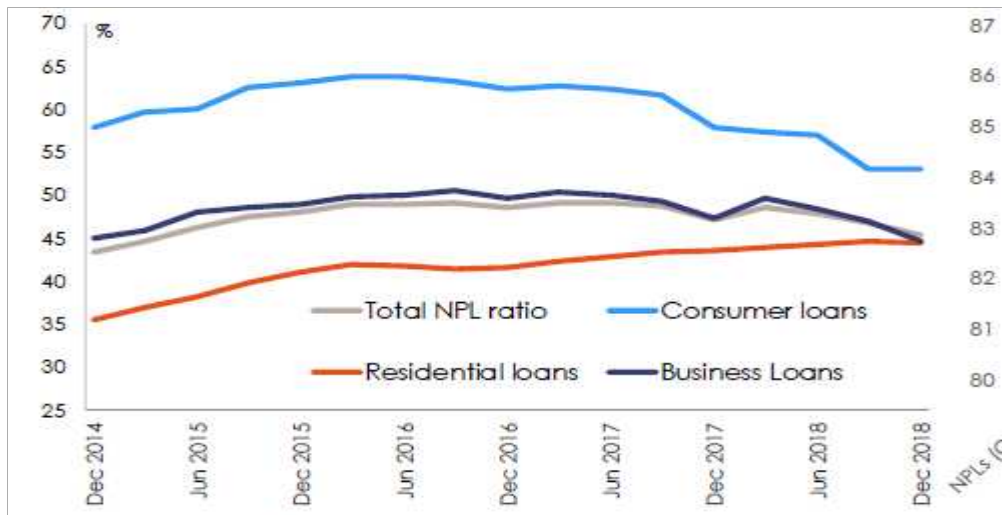
구조적취약성

제조업 기반과 금융부문이 매우 취약

- 그리스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으며, 제조업의 비중은 매우 낮음.
- 그리스 통계청의 2018년 자료에 따르면 산업별 GDP 구조는 1차 산업 4.3%, 광공업 포함 2차 산업 17.5%, 3차 산업 78.2%로 제조업의 비중이 낮고, 관광업 등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매우 높음.
- 금융권의 취약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의 무수익 여신(NPL) 비중은 45%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NPL 비율은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수준이 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됨.

<그림 4> 그리스 은행의 NPL 비율과 개인 및 기업 대출규모

단위: %(좌측), 십억 유로(우측)



자료: Bank of Greece

성장잠재력

관광 부문의 높은 발전 가능성

- 그리스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관광업은 향후에도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 그리스의 관광업 및 이와 연관된 여행 부문은 2018년에 6.9% 성장하였는데, 그리스 전체 고용인원의 1/4이 종사하고 있음. 또한, 관광업과 직접 관련된 산업의 GDP 비중은 11.7%, 간접적으로 연계된 산업을 모두 포함하면 관광업은 그리스 GDP의 25.7%를 점유하고 있음.
- 정부와 민간기업들은 관광 부문의 발전을 위해 유적지나 박물관 주변 시설 리모델링, 크루저 터미널 확장, 신규 호텔 건설 등의 부문에 다수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향후에도 발전이 유망함.

정책성과

경제안정으로 구제금융 프로그램 종료, 신용등급 상향 및 국채발행

- 대내적으로는 경제개혁 정책으로 재정안정, 대외적으로는 수출증가, 외채지표 개선 등의 성과를 거둠.
- 그리스는 구제금융 도입이후, 긴축정책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가 개선되었으며, 주요한 교역상대국인 이탈리아, 독일 등으로의 식료품 수출증대에 힘입어 수출이 증가하였고, 이를 통해 D.S.R 등 외채지표가 개선됨.
- 2018년 8월 유로존 구제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ESM)의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제공 프로그램이 종료되어 8년 간의 구제금융 체제를 마치게 됨.
- 그리스는 2010년 4월 유로존 및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여 5월에 제1차 구제금융(1,100억 유로)이 승인되었으며, 2012년 제2차 구제금융(1,300억 유로)이 승인되고, 2017년 제3차 구제금융(850억 유로)이 승인된 바 있음.
- 미초타키스 총리 취임 후, 2015년 이후 실시되어 왔던 기업과 개인의 해외송금 제한 조치가 2019년 9월 해제되었음.
- 2015년 6월부터 실시된 은행의 현금인출 한도 제한은 2018년 10월 이후 해제되었으며, 2019년 9월부터는 송금 한도제한도 전면적으로 폐지되었음.

정치동향

7월 총선에서 중도우파 신민주당 승리로 미초타키스 총리 취임

- 2019년 7월 7일의 그리스 총선 결과 전통적인 중도우파 세력인 신민주당이 39.8%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31.5%의 득표율에 그친 기존 집권당 시리자당을 제치고 제1당이 됨.
- 신민주당은 전체 300석 가운데 과반인 158석을 확보하여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15년 선거에서 시리자당에 내어주었던 제1당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였음.

치프라스 총리가 이끌던 급진좌파연합 시리자당의 선거 패배 요인

- 2015년의 선거에서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으며 화려하게 등장한 시리자당의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4년 만에 인기가 하락하여 정권 연장에 실패함.
- 치프라스 정부는 2018년 8월 8년 만에 구제금융을 졸업하였으나, 선거 결과 기존의 149석에서 86석으로 의석이 크게 줄어들며 세력이 약화되었음.
- 경제적으로는 채권단의 구제금융 요구조건 수용에도 지속된 경기침체가 패배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 선거 직후 치프라스 전 총리는 패배를 인정하며, “구제금융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무거운 정치적인 대가를 치렀다”고 밝힘.
- 시리자당의 패배는 2015년 선거 당시의 공약과는 달리 구제금융 이후 연금 삭감, 공무원 상여금 및 보조금 삭감, 의료 복지 예산 절감 등의 긴축정책과 세금 인상 등으로 대중적 지지도가 하락한 반면, 약 20%의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는 등 경제상황이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은 것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정치적으로는 마케도니아와의 국명 논란으로 국민적 반발에 직면하였음.
- 구유고 연방의 마케도니아 공화국은 1993년 구유고슬라비아 마케도니아 공화국(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FYROM)이라는 명칭으로 유엔에 가입하였으나, 역시 마케도니아를 계승하였다고 주장하며 북부에 같은 지명의 지역이 있는 그리스와 대립하며 외교 분쟁을 지속해 왔음. 이처럼 그동안 양국은 모두 고대 알렉산더 대왕의 마케도니아 왕국을 계승하였다고 주장해 왔음.
- 그리스 정부는 2018년 6월 북마케도니아라는 국명을 수용하고 북마케도니아의 EU 및 NATO 가입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합의하였으나, 이는 그리스 국민들의 민족주의적 감정을 자극하여 대규모 시위 발생으로 이어졌으며 시리자당에 대한 지지도가 급속히 하락함.

정치동향

신민주당 대표인 미초타키스 새총리 취임과 신속한 내각 구성과 향후 주요 과제

-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는 정치 명문가 출신으로 미국 유학과 투자은행 근무 경험이 있음.
- 미초타키스 총리는 그리스 보수 정치 가문 출신으로 콘스탄티노스 미초타키스 전 총리(1990~93년 재임)의 아들이며, 아테네 시장과 외교장관을 역임한 도라 야코안니스의 동생이기도 함.
- 또한 총리는 체이스뱅크, 매킨지 등에서 근무한 이후 정치권에 입문하였으며, 2016년 1월에는 신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바 있음.
- 미초타키스 총리는 취임 직후 신속하게 내각을 구성하였음.
- 미초타키스 총리는 과거 신민주당 연립정부에서 재무차관을 역임한 크리스토스 스타이코라스를 재무장관으로 임명하고, 과거 국방장관 및 시민보호장관을 역임한 바 있는 니코스 덴디아스를 외교장관으로 임명하는 등 새로운 내각 명단을 신속히 발표하였음.

미초타키스 정부의 친시장·친기업 및 긴축 재협상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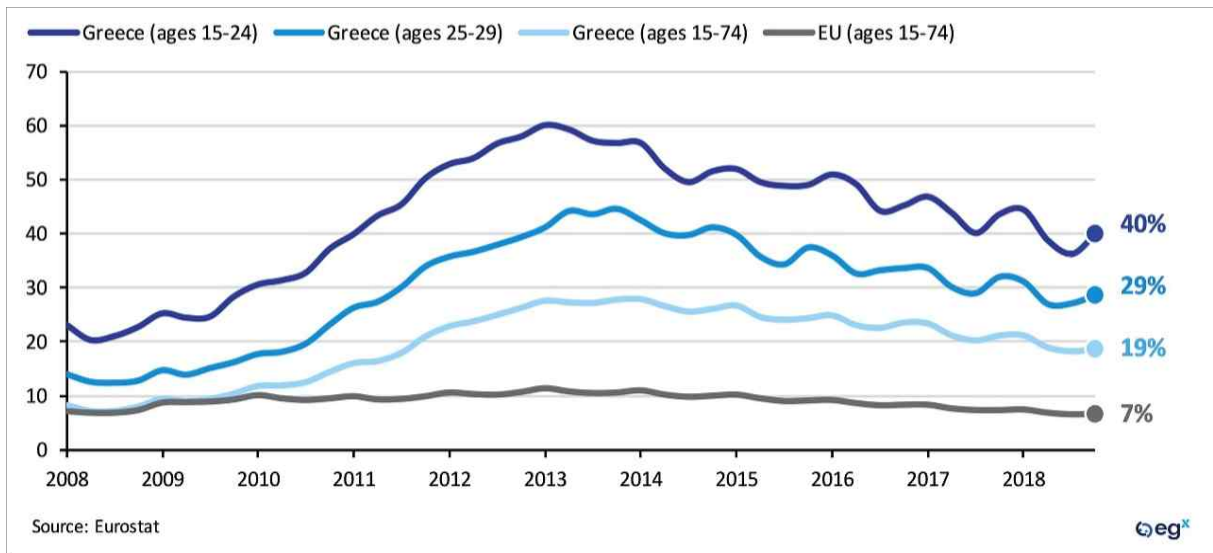
- 미초타키스 총리는 기업 친화정책 추진, 관료주의 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EU와 긴축재협상을 통해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릴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음.
- 총리는 취임 이후 세금 인하, 투자 유치, 공기업 민영화, 일자리 창출, 관료주의 타파 등을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정부의 개혁추진에 따른 기업환경 개선은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신정부는 EU와의 재협상을 통해 2022년까지 GDP 대비 3.5%의 재정흑자 유지 조건을 변경하여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출 확대 추진을 고려하고 있음.

사회동향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나 점차 하락 추세

- 실업률은 2014년 26.5%를 기록한 이후 하락하고 있으며, 2018년 19.3%에 이어 2019년에도 17.8%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나 점진적으로 하락추세임.
- 2018년 기준 19.3%의 실업률은 EU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그리스 다음으로는 스페인이 15.3%, 이탈리아가 10.6%를 기록하고 있음.
- 또한 2018년 15~24세의 청년실업률도 EU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39.9%를 기록하였으나, 이는 2016년의 47.3%, 2017년의 43.6%에 비해서는 하락한 것임.

<그림 5> 그리스의 연령별 실업률과 EU 전체와의 비교



경제위기로 인한 인구 감소 추세

- 그리스 인구는 2010년 1,112만 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지난 7년 간 약 39만 명이 감소하였음.
- 인구 감소의 원인은 복지 축소 등으로 인한 저출산,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두뇌유출 등으로, 그리스 인구는 현재의 추세가 지속되면 향후 12년 동안 77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국제관계

정치 및 영토 문제로 터키와의 부정적 관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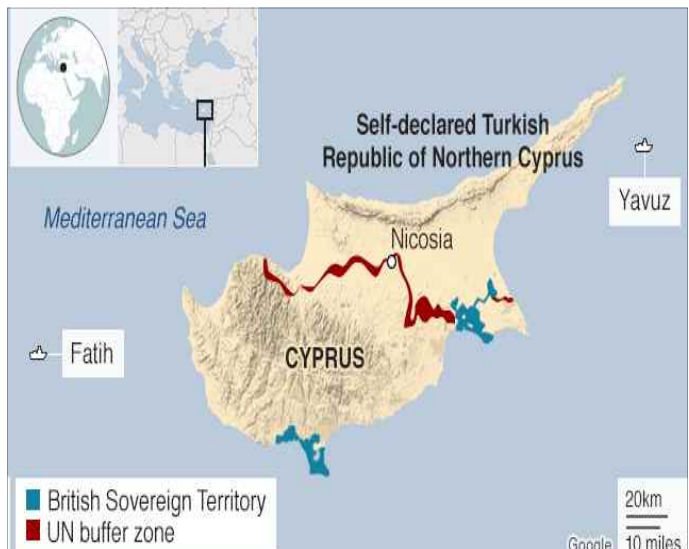
- 2016년 7월 터키에서 발생한 에르도안 정부에 대한 군인들의 쿠데타 시도 실패 이후, 그리스 정부가 자국으로 망명을 요청한 터키 군인들의 송환을 거부하여 양국은 갈등을 겪어왔음.
- 또한 양국은 에게해 지역의 영유권 분쟁, 동지중해 지역의 에너지 개발 및 키프로스의 영토 분쟁 등으로 대립하고 있음.

<그림 6> 에게해 분쟁지역



자료: <https://ahvalnews.com/>

<그림 7> 키프로스 분쟁지역



자료: <https://www.bbc.com>

중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 2019년 12월 시진핑 주석의 그리스 방문 당시 양국은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중국원양해운(COSCO)이 피레우스항 개발에 6억 유로의 투자를 추진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음.
- 중국은 그리스 최대의 항구이자, 지중해에서 스페인의 발렌시아 다음으로 큰 규모의 컨테이너항인 피레우스항을 유럽 최대 상업항으로 개발하는 동시에 중국의 대유럽 교역의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함.
- 코스코해운은 지난 2016년 피레우스 항만의 지분 51%와 컨테이너 화물 부두의 35년 운영권을 확보하였는데, 2022년까지 6억 유로를 투자하여 지분을 16% 추가로 확보할 계획임.
- 그동안 중국의 피레우스 항만 개발에 대해 그리스 국내에서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이번 합의를 통해 향후 중국 기업에 의한 항만 개발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짐.

국제관계

- 또한 그리스와 중국은 향후 에너지, 수송, 금융 등을 포함한 15개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음.
- 그리스 전력기업 'ADMIE'의 지분을 보유한 중국 국가전력망공사는 그리스 본토와 크레타 섬 사이를 연결하는 10억 유로 규모의 해저 전력케이블 구축 프로젝트에 관심을 표명하기도 하였음.
- 한편 금융 부문에서는 중국공상은행이 그리스 내에 지점 설립을 추진할 계획임.

외채상환태도

외채상환 스케줄에 따라 차질 없이 외채 상환 중

- 그리스는 재정위기로 인해 2010년 이후 유로존, IMF 등으로부터 약 3,0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도입 하였으며, 2018년 8월 구제금융을 종료하고 외채를 일정에 따라 상환하고 있음.
- 2019년 10월에는 IMF 자금의 일부인 29억 유로를 조기 상환하기로 결정하였음.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Moody's	B1 (2019.03)	B3 (2018.02)
Fitch	BB- (2019.08)	BB- (2018.08)

국제신용평가 기관들의 그리스 신용등급 상향 조정

- 2018년 6월의 구제금융 종료 발표 이후와 2019년 초의 전반적인 경제회복 추세에 따라 그리스의 국가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됨.
- Fitch는 2018년 8월 BB-로 신용등급을 한 단계 상향조정하고, 등급전망은 안정적으로 평가함.
- Moody's는 2019년 3월 신용등급을 B1으로 두 등급 상향 조정하였으며, 등급전망을 안정적으로 평가 하였음.
- S&P는 2019년 10월 신용등급을 BB-로 한 단계 상향조정하고, 등급전망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 신용등급 상향 조정과 함께 국채 발행이 재개됨.
- 그리스는 국가신용등급 상향에 따라 국채발행을 재개하여 2019년 1월에는 25억 유로 규모의 5년 만기 국채를 발행하였으며, 3월에는 2010년 3월 이후 처음으로 25억 유로 규모의 10년 만기 국채 발행에 성공하였음.

- 그리스는 재정위기로 인해 2000년대 말 이후 경제침체가 지속되었으나, 정부의 경제개혁 정책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의 2016~18년 흑자, 수출규모 증가 등을 기록하며 경제가 점차 회복되는 추세임.
- 2019년 7월 실시된 조기 총선에서 보수 신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확보하여 단독 정부를 구성하고 당 대표인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가 총리에 취임하였으며, 감세 및 민영화 등 친시장주의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반면, 기존의 집권당인 '시리자당'은 긴축정책 추진과 마케도니아의 국명 변경 합의 등으로 인기가 하락하여 선거에 패배함.
- 그리스 경제는 GDP 대비 높은 공적채무 비중, 금융권의 취약성, 높은 실업률 등이 지속되고 있으나, 2018년 8월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마치고 2018년과 2019년 국제신용평가 주요 3사의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올해 초에는 2010년 3월 이후 처음으로 10년 만기 국채 발행에 성공 하였음.
- 이러한 상황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에 비해 한 단계 상승한 D1으로 부여하고자 함.